

감동과 용기를 전해준 박상영 선수의 선전에 축하와 더불어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.

고통을 감내한 오랜 노력이 매 순간마다 생생하고, 국가와 국민을 위하겠다는 소중한 마음은 행복을 전하여 향기로운 인연을 이루게 하였습니다.

온 국민이 함께 환호하고 감동하는 것은 국가대표의 분발과 진력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

언제나처럼 마음까지 건강하기를 축원하며,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불기2560(2016)년 8월 10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